

총본사 건립운동 불교계 자주운동 결정판

자암불교문화재단 '지암 이종욱...' 세미나 개최

"지암 이종욱 스님의 주도로 추진된 총본사 건립 운동은 1920년대부터 추진된 불교계 자주운동의 총 결정판이었다."

(재)자암불교문화재단이 4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지암 이종욱의 독립운동과 조선불교 조계종 주체의 제1차 학술세미나에서 안후상(고창북교)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불교 총본사 건립과 이종욱"을 주제로 발표한 안씨는 "총본사 건립운동이 불교계의 자주적인 통합기초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부응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불교계가 1920년대부터 끊임없이 통일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 정당한 식민지 정책을 펼 일제가 불교계의 큰 흐름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 불교계의 상층권 위상에 걸맞게 통합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불교계 내부의 합의가 일제의 불교계 통합 의도를 확인하면서 촉발돼 나타난 측면도 있다는 것.

안씨는 "일제의 민족 말살기에 한국의 분립된 전통 불교를 근대화된 종단으로 통합, 복원했다는 것 자체가 민족적 성과"라며 "한국 전통의 총본사 대중전의 건설과 더불어 '조계종'의 출범은 민족사의 정체성을 지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차장(조계종 기획실)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현희(성신여대) 교수가 '상해 임시정부와 이종욱의 항일운동', 김광식(부천대) 교수가 '조선불교 조계종과 이종욱'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창수(동국대 명예교수), 홍사성(불교평론 편집위원), 조기룡(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씨가 참여했다. 김원우 기자

“전통사찰 이중규제 철폐돼야”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도심공원법 등 개정 필요성 제기

“도심공원법에 묶여 인터넷 전용선도 쓰지 못하고, 화장실 하나 새로 짓지 못하는 것이 하루 1만여 명이 방문하는 강남 봉은사의 현실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골프장은 만들 수 있고, 사찰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연공원법과 도심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법령에 의해 건축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사찰의 현실을 짚어보고, 법령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국가 불교정책 전반을 살피고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날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는 “중립적 규제에 의한 전통사찰의 현황과 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찰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중립적 규제에 의해 사찰 건축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불교계에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사찰이 건축, 법률, 생태 전문가를 포함하는 ‘불사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사찰의 건축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10여 가지가 있다. 전통사찰의 대부분이 산림관리법이 적용되는 ‘공익용 산지’에 위치하고, 도심 사찰의 경우도 ‘도심공원법’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실상 자유로운 건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현장.

축 활동이 가능한 사찰은 손에 꼽을 정도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불원불사 외의 신축불사를 할 수 없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다.

지정토론에 참가한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도심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봉은사는 불자들의 신행 공간, 스님들의 주거 공간, 방문객 주차 시설 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전태종 영통포럼(회장 무원, 천대종 사회부장)은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의 결실을 조속히 이루어 내기 위해 4월 19일 오후 1시 30분 청주명암타워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상생, 포용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형성 회장(충북새터민공동체봉사회)이 ‘새터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장아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애로요인’과 ‘상생협력방안’, 임출출 연구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전원형 자급자족 새터민 정착촌 건설’과 ‘지역발전’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김원우 기자

“금강산 성지순례 떠나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금강산 성지순례 상품판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금강산 성지순례상품을 독점 판매한다.

문화사업단은 “4월 6일 (주)현대아산과 ‘금강산 성지순례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며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상품을 불교계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전담 판매하게 된다”고 11일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이를 계기로 불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일한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새로운 불교유적지 발굴과 실행중심의 성지순례상품개발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문화사업단은 법기암터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대종

사의 정진 오도성지를 찾아내 순례코스화 했다. 또 기도와 수행을 결합한 성지순례상품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금강산 성지순례를 원하는 불자는 문화사업단(02-2011-1859)에 신청서와 사진 1장만 제출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몽골 등에 해외봉사자 3명 파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이 몽골과 스리랑카의 복지사업현장에 3명의 NGO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조길현(28)씨는 몽골에, 이승아(28) 최성호

스리랑카 조계종복지센터 6월말 완공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센터가 6월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스리랑카 복지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지관)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스리랑카 파살라 지역에 진행 중인 조계종 복지센터 건립공사가 현재 건물 기둥 및 벽면건설이 완공되고 지붕공사가 진행되는 등 약 60%의 공정률을 보

(27)씨는 스리랑카에 각각 파견된다. 이들은 4월 중순 경 출국해 1년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해 온 몽골 우물개발사업과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을 돕는다. 여수령 기자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환 조계종중앙선도회 부회장 또한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는 불법(不法)이라고 전제된 뒤, ‘사찰이 국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중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령 기자

상생·포용의 길 모색

영통포럼, 19일 토론회

전태종 영통포럼(회장 무원, 천대종 사회부장)은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의 결실을 조속히 이루어 내기 위해 4월 19일 오후 1시 30분 청주명암타워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상생, 포용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형성 회장(충북새터민공동체봉사회)이 ‘새터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장아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애로요인’과 ‘상생협력방안’, 임출출 연구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전원형 자급자족 새터민 정착촌 건설’과 ‘지역발전’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김원우 기자

영어로 ‘경허’를 읽는다

조계종출판사 영문 ‘경허집’ 펴내...행장·선시 등 담아

한국 근대불교의 중흥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경허 스님의 법문과 선시를 담은 경허집 영문판(The Collected Writings of Gyeongheo)이 출간됐다(사진).

경허집 영문판은 각각 250쪽이 넘는 산문집과 시집 2권 1집로 구성됐다. 시집은 5년 절구, 7년 절구 등 다양한 형식의 한시와 오도송, 행장 등으로 구성됐다. 산문집은 법문, 서문, 스님들과 편지, 선사들의 행장 등이 실려 있어 경허 스님의 사상과 당시 불교계의 정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영문판은 통도사 극락선원 명정 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경허집>을 모본으로 박영의 명예교수(충남대 영문과)가 번역했다. 김수는 매티베게하우프트(미국 미시건대 한국학 박사과정)와 미국 UC버클리 중



교학 박사 출신인 법진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이 맡았다. 남동우 기자

TIP 경허 스님(1846~1912)은 후정 스님 이래 한국 근대 선(禪)의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다. 유불선에 통달했으며 한암, 만공, 수월, 해월 등 걸출한 선사들도 많이 배출했다.

충북언론호법단 출범

충북불교총련, 감시활동 다짐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광)는 3월 6일 정기총회를 열고, 언론호법단을 정식으로 발족했다.

언론호법단은 정기적으로 방송과 신문 등의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종교편향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회장에는 법주사 주지 도광 스님이 선출됐다. 사무총장은 혜철 스님. 여수령 기자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y.buddhapia.com/homepage/hawaii)를 개최한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 3월 15일~4월 20일
2차 = 5월 1일~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니 궁전 탐방.
 - 역사체험: 사탕수수농장 방문, 진주만 탐방, 편지통 국립공원 체험.
 - 자연체험: 와이키키 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리산, 와이메하공원.
 - 문화특강: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강’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010-6318-1976

상조법인(주)에원라이프

불교 브랜드 장례서비스

이름을 받습니다. 이르기부터 발원합니다.

자랑보살의 힘으로 지우고 고만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서방극락왕생의

업계 최초 후불제 실시!!

행사 만족 후 지불하는 믿을 수 있는 회사!!

상조이행요율서

사람이나 종단 단체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신청하신 사람이나 종단에는 소정의 봉사금을 보시하겠습니다.

★ 극락왕생 회원 서비스내역 ★

순서	구분	종류	비고
첫째날	일종	(주)에원라이프 장례서비스로 인력(명불전스 24시간 밤시대)	무료봉사
	지도사	선문장례 지도사 (목사 출중)	무료봉사
		장례전문 여성도우미 2명	무료봉사
		수시(장제수) 수시(전문 장례지도사)	무료봉사
수시	수시복, 수시포, 칠성관, 방침대, 배계, 현지	무료제공	
	탈지면, 알코올, 액자리본(영정사진용), 영정사진, 부외복	무료제공	
	향로, 촛대, 방풍, 조등, 잔, 잔대, 돗자리, 조기	무료대여	
둘째날	함금문양 삼베수어Set(대미 100% 시험상적서 첨부)		무료제공
	소품	열습2명(전문 장례지도사)	무료봉사
		배계, 승신(꽃신), 허리띠, 멧베(필요시)	무료제공
		한지, 탈지면, 알코올	무료제공
대형인양	관(오동나무 목제물)	무료제공	
	훈백, 공포, 예단, 초식(보급), 운야, 영정, 관보, 결관(바스탕)	무료제공	
의인용품(상주용)	관(계복 또는 검정양복(계상수) 상장지팡이, 완장, 질신	대여및제공	
	여성복, 복조끼, 수질, 요질, 행진, 두건, 리본	무료제공	
셋째날	리무진 운구차 / 대원버스 / 꽃상여 중 택 일		무료제공
	선도 처량대, 현세장갑(운구용)		무료제공
행장서비스로 장지명사(운구)		각종명정차 대원(각종 증명서류, 증명 요지 및 납골 예약)	무료대행
LIG 손해보험		상해사망 / 후유장애시 1,000만원 지급	무보험 가입 시 100만원 지급

※ 설명회 및 목회 설명회, 회원이 지정하신 어떤 불교종, 종파의 입도, 영구히 가능합니다. 회원은 손발장례서비스, 용역, 장지명사(운구)로 나가지 않는 불교종, 종파의 입도, 영구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1 등 장례서비스

LIG 손해보험 업무 제휴

회원가입문의 : 1588-9923

상조법인(주)에원라이프 불교사업부

NAVER 통합검색에 "에원라이프" 검색

네이버, 다음, 야후 검색창에 "에원라이프"를 쳐주세요~!